

미와심

2026 여름호 Vol.143





두근두근, 이런 기부 어때요? ‘나눔력키뽑기’

기부나 나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나요?
작은 참여가 모여 만든 따뜻한 나눔 이야기,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력키뽑기'가 춘천예치과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나눔력키뽑기'란?

2,000원을 기부하고 뽑기에 참여하는 새로운 나눔 이벤트입니다.
참여자에는 행운을 뽑는 즐거움과 소소한 선물을 받고,
모아진 기부금은 도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난 5월 춘천예치과 6층 예카페 내에 나눔력키뽑기를 설치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내원객과 보호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며 도내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부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와 함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 때는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고 가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참여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눔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눔력키뽑기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을 고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공간과 함께 일상 속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공간도 나눔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병원, 카페, 상점, 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간에서 '나눔력키뽑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참여가 모여 큰 응원이 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문의

CBS사업지원팀 유지영 사회복지사 ☎ 070-4454-6746



표지이야기

생애주기지원사업 이룸반 그룹활동에
참여 중인 김민서 군의 작품 「자화상」
입니다.

[외와샘] 2026년 여름호 143호

발행처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발행인 엄정호

발행월 2026. 7.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27

전 화 033)255-2491

팩 스 033)255-2494

이메일 kwrc01@rehab.or.kr

홈페이지 www.rehab.or.kr

편 집 편집위원회

길재호, 이슬, 장성영, 목소리,
이재연, 임부연, 이재길, 이성윤,
신지영

디자인&인쇄 (주)아이비스케어

인스타그램 계정

@kwrehab228

복지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어보세요!

복지관의 따뜻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심볼입니다.

외와샘

2026년 vol.143호

복/지/관/미/선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실현

- 02 예치과와 함께한 후원이벤트
- 03 목차
- 04 성장, 더 높이 날아!
- 오버더레인보우 작가 김민서
- 06 건강해지는 일상을 위하여
- 철원 소외지역 가정운동지도 프로그램
- 08 우리들의 신나는 축제, 한마음 운동회
- 2026 한마음 운동회
- 10 나의 멋진 하루, 스페셜데이!
- 새라새주간보호소 스페셜데이 프로그램
- 12 우리가 챔피언!!
- 2026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이야기
- 14 THE좋은세상만들기, 그 후!!
- 2025 THE좋은세상만들기 지원 가정 모니터링
- 16 복지관소식
- 18 나눔, 더불어 행복한 세상
- 우리동네 나눔가게, 후원자와 자원활동가

* 외와샘의 글, 사진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였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무대,
김민서 군의 생애 첫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김민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서입니다.
저는 2018년 8월 19일에 태어났고 자폐성 장애가 있어요.
저는 만화보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일상과 꿈꾸는 모습들을 그리기도 해요.
그림을 그리면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 꿈은 웹툰작가가 되는 것이예요!

민서 군은
오버더레인보우 작가로
선정되어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민서 군의 멘토링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서 군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복지관 생애주기지원사업 그룹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서 군은 애니메이션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즐겨 보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일상에서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민서 군이 KT&G 상상마당과 KT&G복지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오버더레인보우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버더레인보우 프로그램은 KT&G 상상마당과 KT&G복지재단이 예술복지 실현과 창작 지원 영역 확대를 하기 위하여,
선정된 작가들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작품을 순회 전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서 군은 멘토작가님의 멘토링 과정에서 치타처럼 빠르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표현하며 본인의 작품세계를 확장
하고 있습니다.

멘토작가님은 민서가 아직 학생이어서 멘토링의 경험이 적고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가 적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경험이 쌓이면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회기의 멘토링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 열의와 작가님의 지도를 통해 완성된 작품을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는 김민서 군을 응원해주세요~!!



2025. 4. 12.

숲 속 친구들의 놀기
숲 속 친구들과 소품을
그리고 오래내어 배경에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민서는 일상과 동물을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을 통해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가며,
꾸준히 자신 만의 표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채색도구와 표현방법을 익힌다면
앞으로 작품의 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over the rainbow 작가 추천서 중에서



2025. 3. 23.

물소와 새의 인사
물소와 새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리고
오려 붙여 만들어낸
간단한 만화입니다.

순회전시일정 안내

- KT&G 상상마당 홍대
7월 24일(금)~8월 18일(화)
- KT&G 상상마당 부산
9월 18일(금)~9월 29일(화)
- KT&G 상상마당 춘천
11월 6일(금)~11월 17일(화)

글, 사진 / 생애주기지원1팀 길재호 사회복지사

철원 지역에 첫걸음을 내딛은 소외지역 가정운동지도 이야기

모든 사람의 존엄과 행복실현을 위해 달리는 우리 복지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또 한번 의미 있는 첫걸음을 뒀습니다. 그동안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며 호응을 얻었던 '소외지역 가정운동지도' 사업이 올해 철원 지역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춘천 본관의 물리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철원으로 출장을 가고, 철원 본관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정운동지도가 필요한 가정의 연계와 지원을 긴밀하게 책임지는 유기적인 협력, 그 아름다운 동행의 중심에 있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늘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에 진심을 다하는, 참여자 박영미님 이야기

이전의 재활치료 경험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던 박영미님은 올해 운동지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매월 약속된 화요일,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일자리 일정까지 조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평소 헤어스타일을 예쁘게 가꾸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운동 시간이 시작되면 예쁘게 단장한 머리에서 머리핀을 빼놓으실 만큼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올해 운동지도를 위해 선생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사실 혼자서는 집에서 꾸준히 운동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처음엔 긴장도 되고 몸이 굳어있었는데, 치료사 선생님이 동작 하나하나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몸에 힘도 덜 들어가고 움직이기가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30분 동안 운동 지도받고 남은 10분 동안 배운 동작을 스스로 연습할 때마다 몸이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운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참여자 이종권님 이야기

초기에는 하지 근력이 약해져 계셔서 선 자세에서 바닥으로 내려갈 때 무척 무서워하셨던 이종권님은, 거듭되고 있는 운동지도 과정에서 치료사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최근에는 집 안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동네 산책을 나서는 등 활기차게 발걸음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집 안에서 움직이거나 서 있다가 앉을 때 나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 움직임에 맞춰 안전하게 잡아주시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양팔을 위로 올리는 운동을 할 때예요. 어깨가 아프고 마음만큼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처음엔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싶어서, 복지관 선생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제 스스로 힘차게 '대한독립만세!' 하고 외치면서 팔을 올리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아픈 와중에도 그렇게 소리 내어 적극적으로 시도 하니까 힘이 나고 웃음도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챙겨주신 운동 보조기기로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얼른 건강을 더 회복해서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용자분들의 의지가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철원지역 가정운동지도 담당 이진희 물리치료사

매월 한 번이지만 춘천에서 철원으로 이동하는 출장길은 멀고 고됩니다. 하지만 이용자분들의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피로보다는 더 큰 보람이 치료사의 마음을 채웁니다.

"박영미님은 만성 허리 통증을 겪고 계셔서 통증 완화와 하지 안정성에 집중해 중재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음에도 늘 높은 집중력과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셔서 치료사로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종권님 역시 어깨 가동 범위에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스스로 해내려는 재활 동기가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힘든 내색 없이 적극적이고 유쾌하게 치료에 동참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고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두 분 모두 긴장하셨지만 점차 운동의 안전성을 인지하시면서,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마무리 해주실 때 가장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분들의 강한 의지는 소외지역이라는 지리적 거리감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에서 피어난 이 건강한 기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 생애주기지원3팀 이슬 언어치료사



웃음으로 하나 된 하루, 마음으로 연결된 우리, 2026 한마음운동회

4월 25일,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는 특별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복지관이 주최한 「2026 한마음운동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마음운동회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활동가, 후원자,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98명이 참여하며 역대 가장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뛰고, 함께 응원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공동체 축제'가 되었습니다.



398명이 함께 만든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며 행사장에는 청팀과 백팀으로 나뉜 참가자들의 힘찬 입장식이 펼쳐졌고, 운동장 곳곳에서는 매순간 웃음과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종일 명랑운동회, 댄스타임, 보물찾기, 에어바운스, 놀이열차, 마술과 LED 공연까지 참가자들은 하루 종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처음으로 운동회에 함께 한 강원대학교 RISE 사업단이 운동회 참가자 전원에게 쓴 치킨상자가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강원대학교 RISE 사업단은 포토존 운영, 친환경 냉장고 자석만들기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 낸 따뜻한 협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더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을 오래 기억하도록 집에 가서 바로 냉장고에 붙여 놓을 거예요.”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주인공, 오늘의 MVP

올해 운동회 MVP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운동회에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한 정민채 이용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민채 이용자는 경기 종목마다 최선을 다해 참여했고, 다른 참가자들이 낯선 게임에 긴장하거나 주저할 때 먼저 응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상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가족들, 친구들과 같이 웃고 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이 올해 들어 제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이 한마디에서 복지관에서 운동회를 해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밥 해드리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고 갑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점심식사를 담당한 사계절밥차 대표님께서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복지관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저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고민 해 보고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음운동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 효과성 지수 4.83점, 재참여 의향 4.89점이라는 높은 성과를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참여한 이용자와 가족들의 웃음, 행복했다 전해주시는 한마디였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은 서로를 응원하며 용기를 얻었고, 자원활동가는 장애를 이해하는 시선을 배웠으며, 지역사회는 함께하는 가치를 경험했습니다.

복지관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과 도전의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한마음운동회의 웃음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 사진 / 생애주기지원2팀 손원우 체육교사



나의 멋진 하루, 새라새 스페셜데이

새라새주간보호소는 2026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이용자가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하루를 만드는 '스페셜데이 (Special Day)'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이용자 한 분 한 분, 고유한 욕구를 반영하는 개인별지원계획(PCP)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과 '원하는 선생님'을 직접 선택하여 오롯이 '1대1로 동행'하며 온전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소통을 진행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자들은 시간을 들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소 품고 있던 버킷리스트를 직접 제안합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들은 교사들이 주간보호소 일상 속 행동과 선호 활동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AAC(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제작·활용하여, 비언어적 방법으로도 나만을 위한 특별한 하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반기 동안 6명의 이용자가 자신만의 특별한 하루를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 가슴 트이는 바다 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긴 뷔페 이용과 정겨운 전통시장 방문, 동물원 관람 등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했습니다. 스페셜데이는 이용자들에게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는 기회였고, 이후의 일상에서도 한층 더 밝고 주도적인 일상을 보내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라새주간보호소의 스페셜데이는 앞으로도 6명의 이용자들이 나만을 위한 특별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또한 이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라새주간보호소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행복과 스스로의 선택을 지지하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했던 나의 멋진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이용빈 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용빈씨는 봉의산 산책 후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뷔페집에서 대기하는 동안의 기다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적당하게 먹으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답니다. 식사 후 좋아하는 닭강정을 간식으로 준비하고 풍물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생일을 보냈습니다. 시장 구경하는 동안 용빈씨가 담당자의 팔짱을 끼더라구요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김영빈 님

새로운 곳 구경을 좋아하는 영빈씨와는 가평 실내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도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영빈씨는 수달, 카피 바라 등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선택한 숯불닭갈비로 식사한 뒤 춘천으로 돌아오면서 들린 휴게소에서는 맛있는 핫바 하나도 남았. 그리고 야외카페에서 제일 좋아하는 달달한 커피 한잔으로 스페셜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문범선 님

물을 정말 좋아하는 범선씨입니다. 언어적 소통은 어렵지만, 맞춤형 AAC도구를 활용하여 본인이 가장 원하는 '수영장 활동'을 정확하게 선택하였습니다. 수영 후에는 범선씨가 가장 좋아하는 닭갈비로 식사를 하였는데, 평소 채소 편식이 심한 편이지만, 좋아하는 닭갈비 안에 있는 채소는 남김없이 모두 맛있게 먹을 만큼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슬기 님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슬기씨, 스페셜한 하루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선호하는 활동을 조사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옷 가게, 사진관 등 선택한 장소에서 마주친 여러 이웃들의 생일 축하를 받았고 이용자가 직접 고른 옷을 구입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진 보는 걸 좋아한다는 부모님의 추천에 독사진과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찰칵!



정용균 님

바다를 좋아하고 공놀이를 좋아하는 용균씨와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는 담당자에게 선생님은 안역냐고 물어주는 넉넉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택 활동인 드로잉 체험을 하면서 강사에게 잘한다고 칭찬 받으니 용균씨 특유의 멋쩍은 웃음과,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가자며 손잡아주는 용균씨 멋집니다.



박인옥 님

손재주가 좋고, 동물을 좋아하는 인옥씨는 직접 말로 전하지는 못했지만 맞춤형 AAC 도구를 활용하여 스스로 특별한 하루를 계획하였습니다. 인옥씨는 여러 후보의 음식 중 직접 '뷔페'를 선택해 즐겁게 식사한 뒤, 좋아하는 견기와 동물과 교감 할 수 있는 '해피초원목장'을 선택했습니다. 목장을 여유롭게 걸으며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며 교감했으며, 푸른 자연 속에서 멋진 인생 사진도 남겼습니다.

글, 사진 / 새라새주간보호소 이기용 사회복지사

우리가 챔피언!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야기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선수단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값진 성과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그리고 함께 만든 우승의 순간

춘천본관에서는 이번 대회에 농구, 볼링, 수영 종목에 총 16명의 선수가 춘천시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선수들은 수개월간의 꾸준한 훈련과 노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으며, 그 결과 농구 종목 우승, 볼링 금메달, 은메달, 수영 2관왕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관 농구팀은 이번 우승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6년 연속 우승이라는 값진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매주 2회, 정기훈련과 개인훈련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우리 복지관 농구팀은 강원도를 대표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구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반비위너스 팀원들랑 같이 연습하면서 재미있어졌어요. 우승해서 기분도 좋지만 함께 훈련한 팀원이랑 함께해서 더 행복합니다.”

- 조경준 선수



“금메달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습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감동을 전해준 주인공 중 한 명은 수영 종목 자유형 25m, 50m 2관왕을 차지한 양다는 선수입니다. 양다는 선수는 그동안 경기단체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며 기록 향상과 경기 결과에 집중해 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복지관 선수단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외에도 양다는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망상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겼고, 도깨비굴 스카이워크를 방문하며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모여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에는 농구, 볼링 선수들이 수영장 관중석에 모여 양다는 선수를 향해 큰 목소리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 응원은 기록 경쟁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회에 나가면 딱 경기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여행도 하고, 웃고 떠들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한층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메달도 기쁘지만 아이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모습을 본 것이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 양다는 선수 어머니



하나 된 팀의 힘으로, 다시 금빛 도전을 꿈꾸다

속초본관 해남평생대학 축구과 이용자 7명은 속초시 대표 선수단으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각 시·군 선수들과 열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대회를 위해 꾸준히 훈련하며 경기를 준비했고, 그 결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금메달을 차지했던 만큼 아쉬움도 남았지만, 선수들은 결과보다 “함께 한다”는 값진 경험을 얻으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4년째 해남평생대학 축구과에 참여하고 있는 임정환 이용자는 이번 대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중학생 때 시작한 축구 수업을 어느덧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회에 참가하며 여러 메달을 받았지만, 이번 대회는 유독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승한 팀과의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된 우리팀의 힘으로 다음 대회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복지관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라켓을 잡고, 세상 밖으로

철원본관에서는 볼링, 배드민턴, 한궁, 사이클, 당구 종목으로 이용자 12명이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그 결과 배드민턴 단식과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뜻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로 출전한 조인호 학생에게 이번 대회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배드민턴을 할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라켓을 잡고 셔틀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집중과 즐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꾸준히 배드민턴 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씩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익숙해졌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갔습니다.

“인호는 새로운 환경에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는데, 배드민턴을 하며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회를 다녀온 뒤에는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 조인호 선수 어머니

함께라서 더욱 빛났던 시간,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숙소에서는 친구를 만들었으며, 여행지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대회의 진정한 의미는 메달의 개수보다 선수들이 보여준 성장과 변화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사진 / 생애주기지원2팀 손원우 체육교사, 속초본관 이성윤 사회복지사, 철원본관 이행규 사회복지사

작은 기술이 만든 큰 변화,
THE좋은세상만들기
스마트홈 구축 지원사업

우리 복지관은 THE좋은세상만들기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택 개보수가 아닌, IoT 기반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구축 지원사업은 관련 전문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홈 기기 선정 및 설치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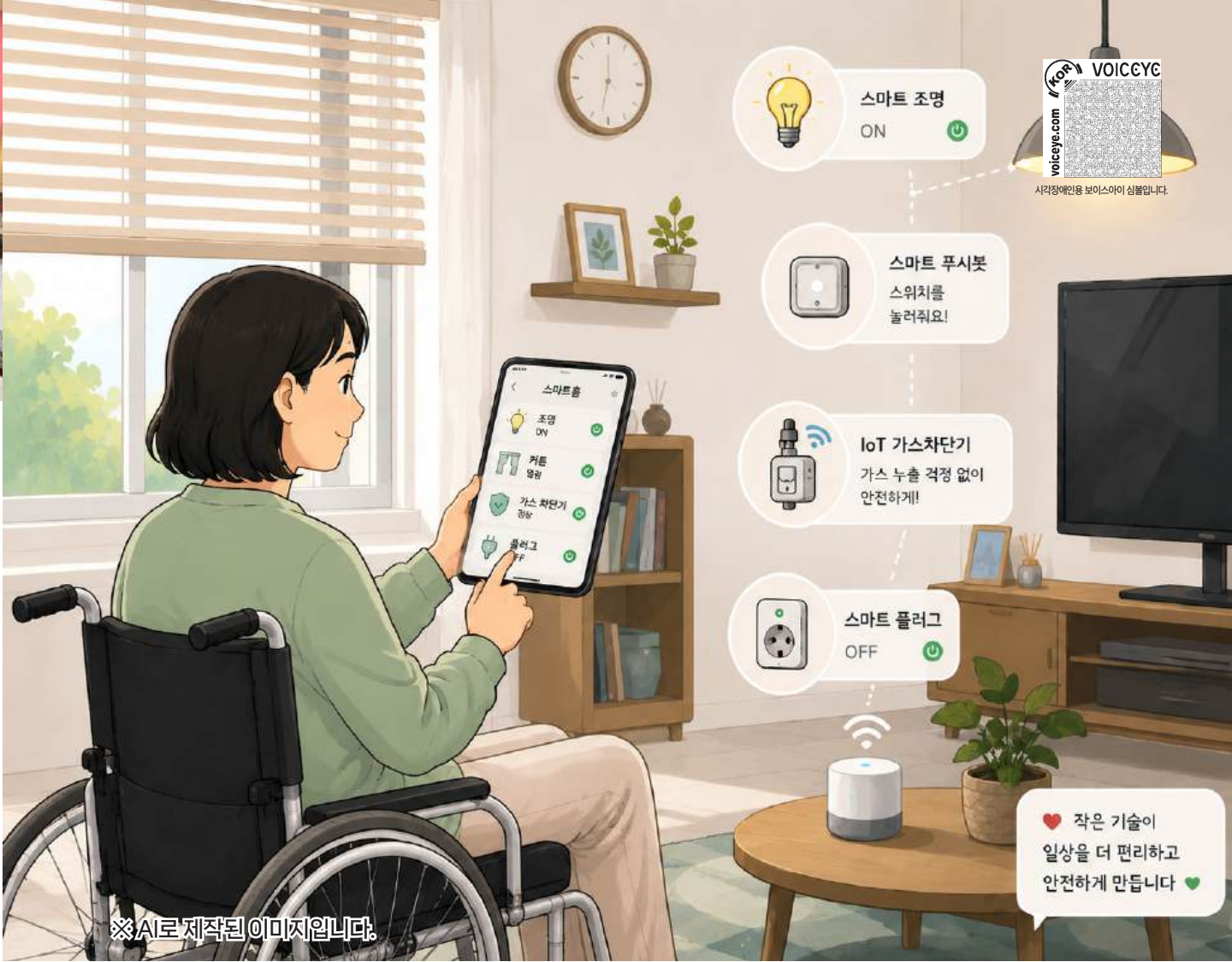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THE좋은세상만들기 사업을 통해 총 15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스마트 조명, 스마트 푸시봇, 전동 커튼·블라인드, IoT 가스차단기 등 맞춤형 스마트홈 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가정 내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THE좋은세상만들기 사업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난해 스마트푸시봇을 지원받은 한 이용자로부터 반가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등 하나를 끄는 간단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스스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큰 변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THE좋은세상만들기 사업을 통해 스마트 푸시봇을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잠자리에 누운 후에는 혼자 전등을 끄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퇴근하신 뒤에는 불을 켜둔 채 잠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푸시봇을 설치한 이후에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끄고 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조명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작은 기술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일상의 불편을 줄여주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해 준 소중한 지원이었습니다.

THE좋은세상만들기 사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스마트홈 지원을 통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 속 주인공 사례처럼 스마트홈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스스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올해도 THE좋은세상만들기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이어갑니다.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10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지원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기술과 복지가 만나 장애인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기술이 만드는 큰 변화가 더 많은 가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4월~6월 다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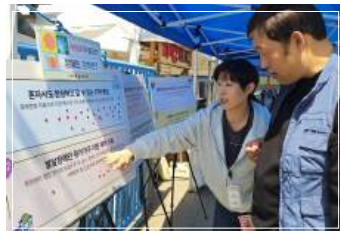
2026 강원 장애인복지포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강원지역 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2026년 강원 장애인복지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준비한 이번 포럼은 최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발 맞추어, 강원지역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마음 운동회

우리복지관과 함께 하는 모든 이용자와 가족, 자원활동가, 후원자 및 직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음껏 누리는 한마음 운동회가 강원생명과학고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운동회를 위해 지역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해주셔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다 함께 다양한 활동과 체험거리를 즐기며, 푸짐한 경품과 간식으로 두 손과 마음이 모두 넉넉해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속초 장애인인권캠페인 '어서와, 인권여행은 처음이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속초시 시민들과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하는 2026 속초 장애인 인권캠페인이 개최되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인권 여행'이라는 주제로 참여자에게 배부된 '체험용 여권'에 스탬프를 찍으며 속초지역 10개 기관이 운영하는 각 부스를 둘러보고 인권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창분관 찾아가는 장애인인권영화제

평창분관에서는 4월 횡계초등학교, 6월 대화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장애인인권 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이세계소년'을 학생들과 함께 관람한 뒤, 학생들이 직접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참여형 인권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영화제를 통해 한 번의 만남이지만, 서로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애주기지원사업 가족운동회

속초분관 생애주기지원사업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뛰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동회에 참가한 가족들은 노랑팀과 파랑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협동게임과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9월 미리보기]



2026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바둑대회

도내 바둑을 사랑하는 장애인 바둑 애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강원특별 자치도장애인바둑대회가 7월 22일 춘천시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승패를 떠나 도내 바둑애호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HE좋은세상만들기

2026 THE좋은세상만들기 사업에 신청해주신 모든 가정에 대한 선정이 6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서류 심사, 가정방문을 통한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물리적 주거 환경 개선 10가정과 스마트홈 지원 10가정 등 총 20가정이 최종 선정되어, 하반기 동안 각 가정에 시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가정 환경의 변화를 기대해주세요!



사람중심실천(PCP) 실무자 학습 네트워크

아산사회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중심실천(PCP) 실무자 학습 네트워크가 진행됩니다. 도내 사람중심실천 기반 사례지원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 PCP철학 및 도구활용 교육을 완료 후 내년부터 각자의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는 PCP실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지원사업 비전워크숍

2027년도 생애주기지원사업을 위한 비전워크숍이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시작된 생애주기지원사업 고도화 이후 더욱 변화된 내용들로 진행 될 비전워크숍에서는 초등저, 초등고, 중등, 고등 등 각 연령대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생애설계서 작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하는, 더 나은 생애주기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음식 나누기

춘천, 양구, 화천, 평창, 속초, 철원 등 복지관 각 사업장에서 지역 내 재가장애인들의 풍성한 추석 명절나기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음식과 선물을 준비합니다. 누구나 소외됨 없이, 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여러 후원자, 자원활동가들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복지관과 지역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나눔가게를 소개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춘천, 양구, 화천, 철원, 속초, 고성 등 6개 시·군에 총 42개소의 나눔가게가 우리복지관과 함께하며 현금과 현물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나눔가게를 많은 관심과 이용으로 응원해 주세요!

나누어진 마음, 이렇게 사용됩니다!



장애인꿈 지원

장애인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문화여가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지원

춘천 (28개소)

수누리감자탕, 상송국어학원, 세경볼링장, 공신기업, 우리집한우, 콩사랑마을, 배가네뷔페, 돈, 명품춘천한우, 우리소아과, 이&신소아청소년과, (주)에이비라이트, (주)효송기업, 춘천명물닭갈비, 춘천예치과, 티라미수, 박대진치과, 윤화준소아청소년과, 대성식당, MDA학원 퇴계점, 별하네해마루, 국립춘천박물관 뮤지엄카페, 큰손양대창곱창구이, 파란파도미술교습소, 리더짐 어린이스포츠센터, 네일돌, 팔팔반점, KSC키즈폴 어린이수영장

양구 (8개소)

미담인테리어, 양구사진관, 양구신협, 제주도생고기, (주)동양엔지니어링, (주)삼광F&B, 코오롱 종합장식, 최가네

화천 (2개소)

맘찬, (주)성민조경

철원 (2개소)

김화치과의원, 윤가정의원

속초 (1개소)

샤브올데이 속초점

고성 (1개소)

고성 DMZ 뮤지엄카페

4월~6월 자원활동가

강성용 고민정 고희수 구민주 김가은 김건희 김관형 김도연 김도는 김동근 김미남 김미양 김보현 김순영 김은희 김유리 김정빈 김지현 김채연 김태우 김태은 김효철 김휘민 남예린 도솔미 문서정 박경환 박영준 배예주 선 울 안혜리 양정미 양정원 엄태집 우명화 유예빈 유시연 유하연 윤서연 이세림 이수민 이시연 이슬아 이예원 이예진 이은서 임나은 임채이 전계희 정예린 조문건 조승범 조연우 조유림 진민아 진장철 최서현 최성민 최유진 최주원 홍성모 홍세은 황도경

4월~6월 신규 후원자

고금순 고윤호 권춘옥 김동숙 김동순 김명옥 김순열 김용복 김영희 김은서 김철환 김추화 김현옥 남궁관 류용재 민동건 박규리 박상규 박일수 방희영 서인숙 송유정 신지영 오창수 유기훈 유미향 윤성일 이경희 이상훈 이수연 이정숙 이진우 이현지 이미영 임정환 장종호 전대웅 정동혁 정성연 천윤영 최순옥 최 웅 최은희 하연주 한은경 한정화 홍수흔 어울찬 KSC키즈폴어린이수영장후평점

4월~6월 신규 나눔가게

KSC키즈폴어린이수영장후평점

아이들이 물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는 KSC키즈폴 어린이수영장 후평점이 우리복지관 나눔가게로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시작해주셨습니다.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312 지하1층





사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심볼입니다.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복지관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네이버 밴드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27

T 033)255-2491 F 033)255-2494 www.rehab.or.kr